

###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7기



#### 불교인의 직업윤리

원래 인도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었던 것이다. 바라문교의 교리에 의하면 "성자는 베다를 학습하고, 입금은 토지를 영유하며, 서민들은 농경에 종사하고, 노예들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직분"이었다. 때문에 신분에 걸맞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불문을 이었다. 천부적으로 직업의 선택권을 부여받았기에 태어나는 것 역시 신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했다. 즉 바라문은 별천의 입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왕족이나 무사계급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 일반인은 우리들이 태어나듯이 태어났으며, 노예들은 엄지발톱 사이로 태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신분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태어나면서 인간의 신분이 구분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불평등하게 보이는 것은 각각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업에 의해 정해졌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운명이나 삶의 형식은 각자가 만든 것이라 강조했다. 부처님의 사상이 이리했던 만큼 직업의 귀

수 없었다. 사회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각자가 맡은 일은 그 자체로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열을 구분하는 일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 보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간들은 직업의 우열을 구분하고 있었다. 선호하는 직업이 있었으며, 혐시하는 직업이 있었다. 그러나 호응을 떠나 가급적 하지 말기를 권장하는 직업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지했던 직업은 무기, 생명체, 술, 고기, 독약 등을 판매하는 일이었다. 물론 이들 중에서 술은 인간을 게으르게 하고 지혜의 종자를 말리므로 금지했다. 기타는 모두 생명체를 해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유기적인 인간세계 속에서 독약, 무기, 고기 등은 생명을 해치는 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불교도들은 재판관이란 직업도 바람직한 직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형집행인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대승불교의 증상은 이성과 같은 보수적인 직업관에 일대 전환을 야기시켰다.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내가 하겠다는 생각의 발로였다. 중국의 공자님도 <논어>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

### 독약·무기 등 생명살상 관련 직업 금지 대승불교후 사회 공익 맨 규범 초탈

현을 구분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현명하고 지능이 있으면 베다를 학습하고 주문을 암송하더라도 관계없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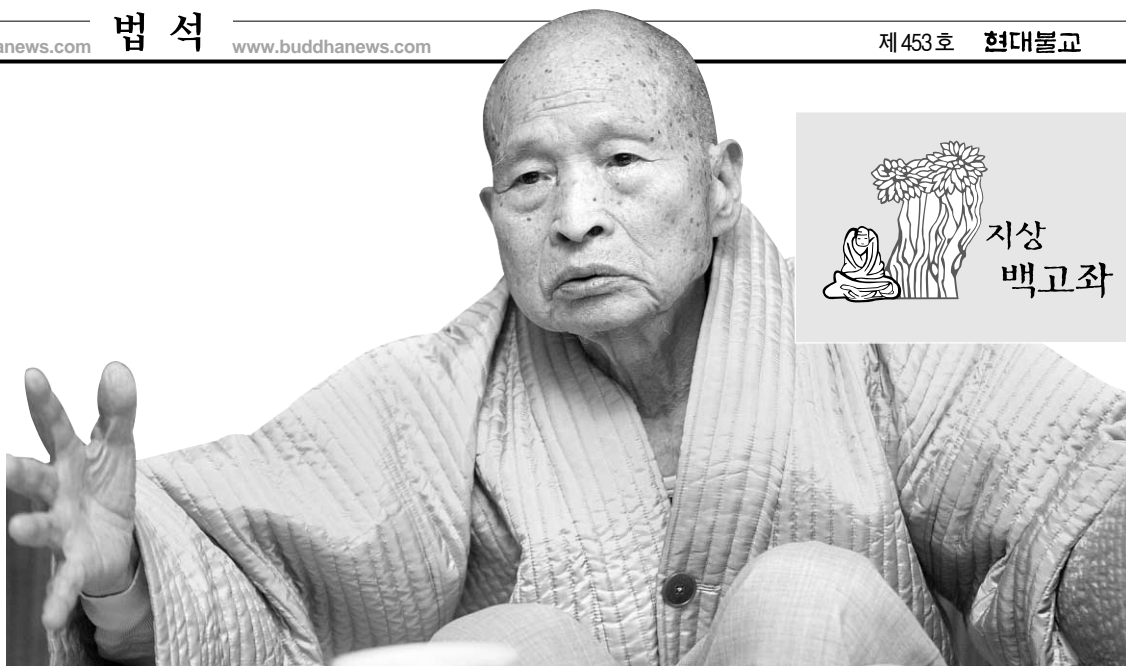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회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사회의 안녕과 유기적 관계를 위해서도 직업의 귀천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할 뿐이었다. 동시에 인간존재 내지 생명체는 너나없이 존귀할 뿐이라는 평등의식이 깔려있다. 현재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가치의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직업을 구분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일이 사회에 필요한 일인가, 악영향은 미치지 않는가 하는 점에 문제의 초점이 있을 뿐이었다. 무슨 일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본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빈둥거리거나 직업의 우열을 가리는 행동은 온당한 불교도의 자세가 될

라"는 말씀이 있다. 대승불교의 직업윤리와 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승불교도의 임무는 그 직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사회적 안정과 증생의 행복이라는 점에서 방지와 제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술이란 것이 사회의 필요악이라면 내가 그런 장사를 할 때는 도에 넘치지 않겠다는 마음 가짐과 그에 따른 실천이 병행되면 가능하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때문에 <화엄경> 입법계품에는 직업의 귀천을 구분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지식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유마경>에서는 번뇌가 바로 깨달음이며, 열반이라 말하면서 현실세계를 도의적인 별도의 불국정토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대보적경>에서는 여성들이 보살도를 실천하기에 더 적합하므로 자원하여 여성의 몸을 받아 태어난다고 가르친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 사회의 안녕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라면 규범을 초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며든 것이다. <본지 삼임본살원 · 불교학 박사>

\* '불교공부' 코너는 금주에 마감됩니다. 그간 애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산 스님은 "승·속을 떠나 불자의 근본은 계를 지키는 것"이라며 계를 지키고, 신심과 부지런함, 끈기가 있어야 하며 다 버릴 줄 알아야 부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하신다.



지상 백고좌

#### 부처의 길

## 계 지키기 신심 부지런함 끈기 다 버려라 버린다는 것도 버림



◇적어도 하루 한 시간씩은 사경으로 보내는 석산 스님. 요즘은 <금강경>을 사경하신다.



◇석산 스님은 일체의 산문 출입 없이 1년 365 일을 염불 수행으로 보내신다. 법당 주변을 포행하며 아이티볼을 염하시느라 스님.

한 번 왔다가는 것이 정법(正法)입니다. 이 몸이 늙으면 버리고 가세요. 사람 몸으로 태어났고 백년 이백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왔으면 잘 살고 가냐. 못 살고 가냐. 그게 있는 것이 지이 세상에 왔다가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스님들도 성불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왔다가 가는 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세속에 왔으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죄짓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출가해서 중(僧)이 되면, 중이 곧 계(戒)입니다. 계를 철저히 지키고 그래야만 시주(施主)의 은혜가 무겁지 않은 법입니다. 시주받은 밥 한 알의 무게가 입골 근이라 그랬거든요. 계를 안 지키면, 한 알에 입골 근이니까 일평생 밥을 먹으면 그게 한 근이나 되겠습니까. 무섭지요. 시주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속에서 살면 농사짓든지, 장사하든지. 그러면 살지만 출가자는 그렇게 안 살아요. 시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주로 사니까 시은(施恩)이 그리 무거운 것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그리고 아프면 약 먹어야 되고. 이것을 불가에서는 네 가지 큰 시주라 하여 사사시주(四事施主)라 하거든요. 내가 계를 철저히 안 지키면 그 시주, 무섭지요. 시주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시주들이 집에 들어오면 출가자는 먹고, 공부하고, 또 쉴 짓거나 고치고. 그 외에는 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을 보이고 웃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주만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계를 잘 지키는 것이 사사시주의 은혜를 갖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을 잃어 버립니다.

원래 출가자의 근본이 계 아닙니까. 계를 벗어나서는 못 살지요. 기차가 레일이 없으면 못 가는 것

처럼 출가자는 계를 안 지키면 못 사는 겁니다. 일반 재가불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자는 모름지기 계를 지키는 것이 그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첫째 계를 지켜야 하고, 둘째는 신심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부지런해야 되고, 넷째는 끈기가 있어야 되고 다섯째는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를 안 지키면 출가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계가 아주 세밀하고 엄해요. 비구 250계를 보면, 남과 얘기할 때도 입뿔을 보이고 웃지 말라고 그랬어요. 길을 갈 때도 7m 앞만 보지, 그 이상을 고개 들어 보거나 옆을 보지도 말고, 다닐 때는 언제든지 차수하고 다니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주 엄해요. 지키기 어렵죠. 지키기 어려우니까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가자도 필요하

## 목초 함초

화제의 발바닥 건강법 : 발바닥에 붙여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 목초수액시트 고객사는행사중입니다.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시린분, 팔, 다리가 추시는분,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수액시트 특별가!

구인 찬스 고객사는행사 30 + 30매 45,000원

손발이 차거나 시린분 아픔에 시달리는분 등

### 몸속 해독 - 함초

바닷가 갯벌에서 자라는 신비의 식물! 함초는 순수한 염(해조류·미역, 다시마)보다 많이 함유할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을 함유한 함초! 꾸준히 사용시 속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며,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각종 미네랄 섭취에 도움을 주는 함초는 자연이준 귀중한 선물입니다. (자연, 냉풍, 냉동동결건조제품입니다.)

..... 함 초 생 산 품 .....

함초 분말(자연건조) 200g 56,000원      자매품  
함초천(자연건조) 200g 50,000원      밸런스 화이버 35,000원  
함초 캡슐(냉풍건조) 150g 66,000원  
함초다이어트 150g 80,000원  
기타: 함초액즙(일반, 다이어트), 함초 9곡물 맥, 함초 김, 함초 소금 등

판매원 : 가자라이프 02)5454-010  
농협 : 063-02-124288 이수일 즉시 배달

##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시범에 따라 다름 있음)

- 조상신과 중염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울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적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접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쟁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우고 세운을 갈아 얹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릇들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침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 중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염신도 단번에 보내는 도령입니다!

- 영가의 적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접이니다. (오든 범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청으로 잠 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기어울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불매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병안에서 혼자 중염가런드신 등등... 조상의 음력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이나 무당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장 - 울 50% 폴리에스테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역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 100%(역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역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역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텐 : 면 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0~80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이걸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 당 노

###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다운 밸런스는 사람의 체질을 의학원리상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체질만 양이 부족하여 늦게 상온의 물당지가 다운 밸런스의 당인자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천천히게 떨어지며 물당지 당인자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더진 영양바란스를 조장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x 3병 7개월분 130,000원

관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불우형 원장 개발역사(한약사) 박동환

당뇨병 및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배양, 비만증, 무중,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각에 결려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질조중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전염병, 고혈압

조원케이칼라이프 Co. (주)반도체약품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 석산 스님

(성북동 정법사 회주)

고, 재가불자도 필요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항상 선근(善根)을 닦아오라고 하셨거늘요.

원래 부처님 자리는 때가 하나도 없거늘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니가 때도 없는 불성(佛性)에 때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근을 많이 닦은 사람은 자성(自性)에 킁 때가 얇고 가볍게 되는 것이고, 선근을 못 닦고 자꾸 죄를 지은 사람은 때가 두껍고 무겁게 되지요. 자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성불이 멀고, 때를 많이 닦은 사람은 때가 얇고 가벼우니까 성불이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도 '무구(無垢)'라고 그랬습니 다. 이 세상에 오면 때 없이 살라 그랬어요.

제가 50년대에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모시고 한 4년 지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 다. 동산 스님의 신심, 그 신심을 우리는 죽어도 못 따라잡니다.

대개 큰 절 조실이라고 하면 예불에 잘 안 오게 마련인데 동산 스님은 비가 많이 와도, 날이 추워도 나오고, 눈이 와도 나오셨어요. 그것도 다른 대중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각단을 돌려 예불을 올리고, 예불이 시작되기 20-30분전에 대중전에 와 탁~ 하니 앉아서 계세요. 그리고 아침 공양이 끝나면 언제든지 빗자루를 들고 나오셔서 도량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대중이 안 따라 나올 수가 없지요. 조실 스님이 빗자루 들고 나오는데, 안 따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날마다 쓰는데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래도 하시거든요. 그래, 그 스님께서 남마다 쓸 게 없는 것을 쓰는 그 법을, 그 법을 바로 들여다보려 면 우리가 공부해 가는 데 뒤를 것이 없는 것을 뒤 이어만 바로 닦는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 다. 동산 스님은 그것을 법문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조주록>에 수록된 문답을 보면, 한 스님이 "개에게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자 조주 스님이 "없다!" 하셨거든요. 그 "무(無)"하신 게 무슨 뜻이나 하면, "뒤를 것이 없는 것을 닦아라"는 그 뜻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조주 스님의 법문을 바로 아는 것이지, '무' 했다 해서 조주 스님은 무자화두(無字話頭)만 가르쳐 줬다. 하면 조주 스님 법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동산 스님도 한낱 예불하고 청소하는 것만 보여

## 승속불문 항상 선근 닦아야 남 위함이 곧 자신을 위하는 것

### 아만·법만을 버리고 부족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줬다고 말하면 그 스님 법을 바로 못 본 것입니다. 예불하는 그 신심 하나와, 뒤를 것이 없는 것을 닦아야 한다는 것과, 실 새 없이 닦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앞에서 부처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첫째 계를 지켜야 하고, 둘째는 신심이 있어야 하고, 셋째 부지런해야 하고, 넷째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지 않고는 부처님 경지에 못 들어

갑니다. 마지막에는 버린다는 그 놈도 버려야 됩니다. 버린다는 그 마음까지 안 버리면 안 돼요. 내가 건봉사에서 공부할 때 당시 조실로 계시던 만해 한용운 스님이 무자 화두를 가르쳐줬는데, '무' 라는 것이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없는 자리서 와서 없는 자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질 게 없지요. 자꾸 가지려고 하면 공부가 안 돼요. 또 갖는다는 것은 남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은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면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없습니 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생기니까 자꾸 시비가 생기거든요. 학교에서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저 놈을 이겨야 내가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려면 저 놈을 죽여야 내가 살거든요. 사회에 나가 살아보니까 다들 저 놈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것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 봐서 저 놈을 죽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자기가 불어야 되니까 그렇 다 치더라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죽여 버리고 자기가 살려고, 물질적으로 밀입니 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 다. 부처님의 대승 사상은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믿거든요. 남을 무짚러 버리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남을 죽이면 자기가 죽는 것,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대승 사상은 남을 살리는 것이지요. 남을 살려야 자기도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남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자 여러분들은 항상 부족한 마음을 공부하십시오. 바랍니 다. 내가 훌륭하다, 이러면 공부가 안 됩니다. 아만(我慢)이 생기면 안 돼요. 그것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아만보다 더 무서운 게 법만(法慢)입니다. 항상 마음을 비우고, 부족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스스로 부족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공부가 됩니다.

정리=권형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기자가 들은 석산 스님

석산 스님은 여든 넷이라는 세수에도 시자(侍者)가 따로 없다. "예불은 혼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도 되고, 누구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자 안 두는 거예요. 또 시자 있으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그래야 되거든요. 나는 혼자 있으니가 시간 안 맞춰도 되지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일어나 포행하면서 예불도 하고, 사경도 하고 그러지요."

시간 안 맞춰도 된다는 거짓말(은)은 금방 탄로가 났다. "하루 일과가 시계같이 아주 정형하세요. 공양도 오전 7시, 오후 3시, 딱 시간 맞춰 하시고, 오전 10시, 12시, 오후 2시, 9시. 네 번 포행하시면 서 아미타불을 염하시는데, 그 시간에 밖을 내다 보면 어김이 없으니까요."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정법사 일을 도와주고 있는 이머린 보살의 말이

### 시간 맞춰 예불·사경·기도 "시주물 귀중히..." 강조

다. 요즘은 날이 추워 대신 법당 안을 하루에 40 바퀴쯤 도는데, 걸음으로 따지면 4천보가 된다고 한다.

이 뿐 아니다. 사시에는 스님 방에서 대중원 옆 미륵불을 향해 따로 조성한 불단에서 예불을 올리고, 오전 11-12시에는 사경(주로 <금강경>과 좋은 계승을 사경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하루

일과를 짜놓고 지킨다고 한다. "법자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까지 기도(참선, 사경, 예불)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지."(석산 스님)

74년부터 30여 년을 함께 산 상좌 법진 스님(정법사 주지)은 "출가사문은 시주물을 하루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유난히 강조하신다. 물건을 헛되어 버리시는 일이 없고, 심지어 시주한 돈을 험부로 구기는 것도 허물이라고 나무라신다"고 조심스레 말한다.

"정법사에 오시고 난 40여 년 동안 인도산지승례 락 한 번 다녀오셨고, 그 외에는 일체 산문 출입 안 하시고 1년 365일 예불 수행만 하시는 분"이라는 법진 스님의 말처럼 스님의 이력 또한 간략하다. 1919년 강릉에서 태어난 스님은 36년 출가해 37년 건봉사에서 사미계를, 56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다음은 스님이 정법사 홈페이지 작업을 위해 손수 적어 놓은 행장이다. 45년 가회동 포교당 원주, 49년 망월사 선원에서 안거, 건봉사(51) 해인사(53) 범어사(55)에서 원주, 59년 정법사 주지, 73년 재단법인 선학원 등록(-91년 이사).



### 성전스님의 스님이야기

오성 스님(2)

오성 스님은 일년을 제주의 절에 머물다가 다시 해인사로 돌아왔다. 그는 사십반에 방부를 들었고 나는 그보다 한 반 위인 늙은반이었다. 우리는 한 건물에 동거하고 있었지만 같은 반이었을 때만큼 자주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다. 반이 틀리면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 강원 의 제도였다.

그러나 한번 도반은 영원한 도반이라고 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하는 나의 감정과 자세는 예전과 다름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내게는 반갑고 매력적인 도반이었다. 외로움을 알고 외로움을 향기로 발산할 줄 아는 그의 성숙에 나는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오성 스님이 정말 천진하게 깨어나는 때는 축구를 할 때다. 축구를 무척이나 잘하는 그는 축구를 할 때면 그 빠른 동작만큼이나 경쾌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패스, 패스" 하고 외치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천진불(天真佛)이 따로 없다. 그만큼 축구에 관해서는 애환 또한 많다. 한번은



그림·문병성

이가 부러지는 경험을 해야 했고 또 한번은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래도 스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축구율력 이 있는 날이면 양장서 공을 몰고 축구장으로 향하곤 했다.

해인사 강원 생활의 3월은 참회하다가 보내고, 또 3월은 율력하다 보내고, 나머지 4월은 공부하다가 보내는 것 같다. 율력과 참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큰 것이 해인사 강원 특징이다. 해인사 강원 생활이 어렵지만 어려운 것과 비례해 도반 사이의 정은 도약위치가 마련이다. 졸업하고 나서도 서로 소식을 전하고 자주 만나는 것이 해인사 강원 졸업생들의 특징이다.

강원 졸업후에도 나는 오성 스님이 그리울 때면 제주에 가기도는 했다. 강원에 있을 때와 지금의 제주 방문의 차이는, 그전에는 주로 제주의 명소를 찾아 다녔지만 졸업 후 방문할 때에는 스님이 있는 절에서 머물며 바다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함께 절 앞 바다에 가 수영을 하거나 거닐다는 점

이다. 가끔 함덕 바닷가에 가서 저를 한 잔 마시고 어두워진 먼 길을 걸어올 때도 있었다.

차가 간간히 다니고 그리고 차와 차 사이의 고요를 바다의 물결소리가 다가와 채우고 가는 제주의 밭길은 특이한 매력에 있었다. 낮게 가라앉은 집들의 불빛이 띄엄띄엄 길을 비추고 무수 의 로움처럼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 넘어 새어나오는 길을 걸으며 스님에게서 어떤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외롭고 슬픈, 그래서 아름다운 서정이 묻어나는 한 소년의 성장기였다.

소년은 아주 어릴때부터 절에서 자랐다. 관세음보살을 어머니로 알고 뵈었다는 소년은 언제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있었다. 그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불러도 관세음보살은 어머니의 손길로 손 내밀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해 주지 않았다. 소년에게 관세음보살은 어머니였지만, 관세음보살에게 소년은 혼자 번뇌를 극복해 나갈 구도자로 보였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다. 소년은 그리움이 채워지지 않는 자리를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워 나갔다. 천수천안의 사랑과 자비가 마치 이슬처럼 어린 소년의 가슴을 적셨을 것이다.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의 자리를 수많은 관세음보살의 명호로 채워나간 소년은 따뜻하고 밝은 성품을 지닌 아

### 축구할 때의 모습은 '천진불'

### 관음보살 부르며 어머니 사모

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소년은 중학생이 되던 해에 비로소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자신을 절에 맡기며 관세음보살을 어머니로 알고있던 어린에 대한 안개와도 같은 기억, 그리고 그 기억 속의 여인이 어머니라는 것을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안 것이다.

소년이 어머니를 찾았을 때 어머니는 이미 바구니 스님이 되어 있었다. 소년은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를 수가 없었다. 입가에서 맺도는 어머니라는 말을 애써 지워야만 했다. 공부 열심히 해 큰 스님 되라는 당부의 말을 듣고 밭길을 돌렸다. 그러나 돌아서 오는 길이 그리 슬프지는 않았다. 그래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보았기 때

문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웬지 스님이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소년의 근황을 묻지 않았다. 다만 스님의 외로움에 배어 있는 그 따뜻한 염서 어떤 연유에 근거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보았을 뿐이다.

그날 제주의 밤과 바람과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나는 스님과 오랜 동행이 되어 함께 할 것만 같은 운명적인 암시를 느껴야만 했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 관절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뼈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발명자 : 민족의학자 권재우 홍(경남 신성)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고요?

##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분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 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과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효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蔓蔘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 사지무력증이 나타났다.
-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 인파선이 나타났다.
- ◆ 변비가 나타났다.
- ◆ 기력이 좋아졌다.
- ◆ 만성위염이 나타났다.
-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 전신이 가벼워졌다.
-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 자궁 냉축이 없어졌다.
- ◆ 혈색이 좋아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물사하는 마음으로 영가에 드리려고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kg당 40만원에 20만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만삼인양(만삼) 10kg, 왕기, 민대, 삼끼구름, 생강, 대추, 감초

■ 1 Box × 60포 : 20만원 ■ 2 Box × 120포 : 3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흔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 8292, 562 - 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1 - 9242 - 8292  
● 농업계좌번호 : 315024 - 52 - 012392 (예금주 : 심정택)

## 당신도 침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침술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단기과정!! 속성비결!!

#### 사암침술 강좌

3개월이면 침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3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 내용 : 12경과 경근, 사경도인구요법, 경부의 허실증 판단, 황새(황백)침법, 백소침법, 처방요령, 침술속요법, 정골침법, 종합침술
- ▶ 개강 : 2004. 1. 5 (주 2회 - 매주 월, 화요일. 주 - 아간반)
- ▶ 강사 : 침술속요법, 침술학 교과서 저자 직강(교재 무료)

#### 명리학 강좌

가장 어렵다는 용신법을 쉽고 간단하게 배울수 있으며 3개월만 배우시면 당신도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 ▶ 내용 : 사주작성, 황음법, 대세운법, 서주권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태역, 궁합, 작명법(심승위주)
- ▶ 개강 : 2004. 1. 7(주 2회 - 매주 수,목요일. 주 - 아간반)
- ▶ 강사 : 명리학 교과서, 해파역수 저자 직강(교재 무료)

####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로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매번과 매월은 물론 시간대별로 고품격학부의 적중률이 매우 정확하여 명리학입니다

- ▶ 개강 일정 : 2004. 1. 9 (09:00 - 12:00)  
주 1회 - 금요일 (주 - 아간반) 1개월 완성
-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 무료)

## 사암침술학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중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 홍삼의 기를 마시자!

# 홍삼메딕스

\* 진짜 홍삼은 누구에게나 맞고, 만병을 다스리게 합니다.

### 어머님은 다시 건강을 찾으셨습니다.

- 홍삼메딕스는 일반 기계처럼 한번 쥘 다음 한약다려듯 하는게 아니고, 쥘고 말리고를 9번 반복하는 신비의 구경구조 비법을 최초로 과학화(경목과학대)한 것입니다. (신기술 발명특허출원 10 · 2003 · 0027351)
- 홍삼이라고 다 효능이 같지는 않습니다. 홍삼메딕스는 최고 품질의 홍삼원액을 가정에서, 저렴하게, 얼마든지, 직접 만들어 드실수 있는 최신식 기계입니다.
- 홍삼메딕스에는 춘천목 원석을 넣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기(氣)를 보장합니다.

## 02-777-0105 헬스테크상사